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64호 현대불교
2007년 8월 15일(음력 7월 3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뿌리 없는 기둥이 하늘을 받칠 수 있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전자의 대덕 스님네들의 말씀을 응응한다면 예전에 덕산(德山) 스님 얘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설봉(雪峰) 스님은 제자로서 공양주를 하였고, 암두(巖頭) 스님은 대중을 이끄는 분이었고 또 덕산 스님은 조실로서 계셨는데 아, 사시마지가 지나도 종을 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종을 울리지 않고 하니 바리때를 들고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서 얘기를 다 들으셨을 테니까.

덕산 스님은 바리때를 들고서 오온(五蘊)의 법계(法界)를 위로나 아래로나, 일체제불과 중생이 다 같이 공양하고 그릇을 비워가지고 막 돌아서는데 어린아이가 소리를 질렀단 말입니다. 무슨 소릴 질렀느냐 하면 "늙은이가 종도 안 울리고, 복도 안 치고, 목탁도 안 쳤는데 바리때를 들고 어슬렁거리느냐." 이러거든요.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오고 가는 그 그림자만 보고 말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설봉 스님은 또 암두 스님한테 '저 늙은이가, 그렇게 악을 쓰니깐, 그냥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하니까, '악! 악을 쓰면서 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아, 말후구(末後句)를 몰랐구나!' 그 늙은이가 말후구를 몰라서 그랬구나! 그랬으니 얼마나... 이것은 한쪽에서는 눈이 멀고 한쪽에서는 귀가 뜨이지 않았어. 그 소릴 듣고 그렇게 하질 말았어야지, 지혜가 있다면, 귀는 띄었으나 귀가 띄지 못했어. 눈은 뻘으나 눈이 뜨이지 못했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그것을 화두 삼아서, 사구를 화두로 삼아서 그렇게 한 것은 방편으로 잘 하겠다고 보는데, 그래도 효자가 그것을 한것에 빠진 걸 건졌다고 했으니 이거는 대덕을 너무나 자기네들이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건지고 농락을 했다 이 소립니다. 얼마나 농락을 했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은 예전에 대덕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아, 지금 네가 덕산 스님 이라든 설봉이 그렇게 했을 때에 너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거냐? 요거 한 가지를 일러봐라." 이렇게 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암두 스님이 말후구를 몰랐구나 하는 거를 또 한 가지를 일러봐라" 했을 거고, 그게 천찰백 공안(千七百公案)에 다 들어 있다. 이 소리겠죠. 그거는 의당 다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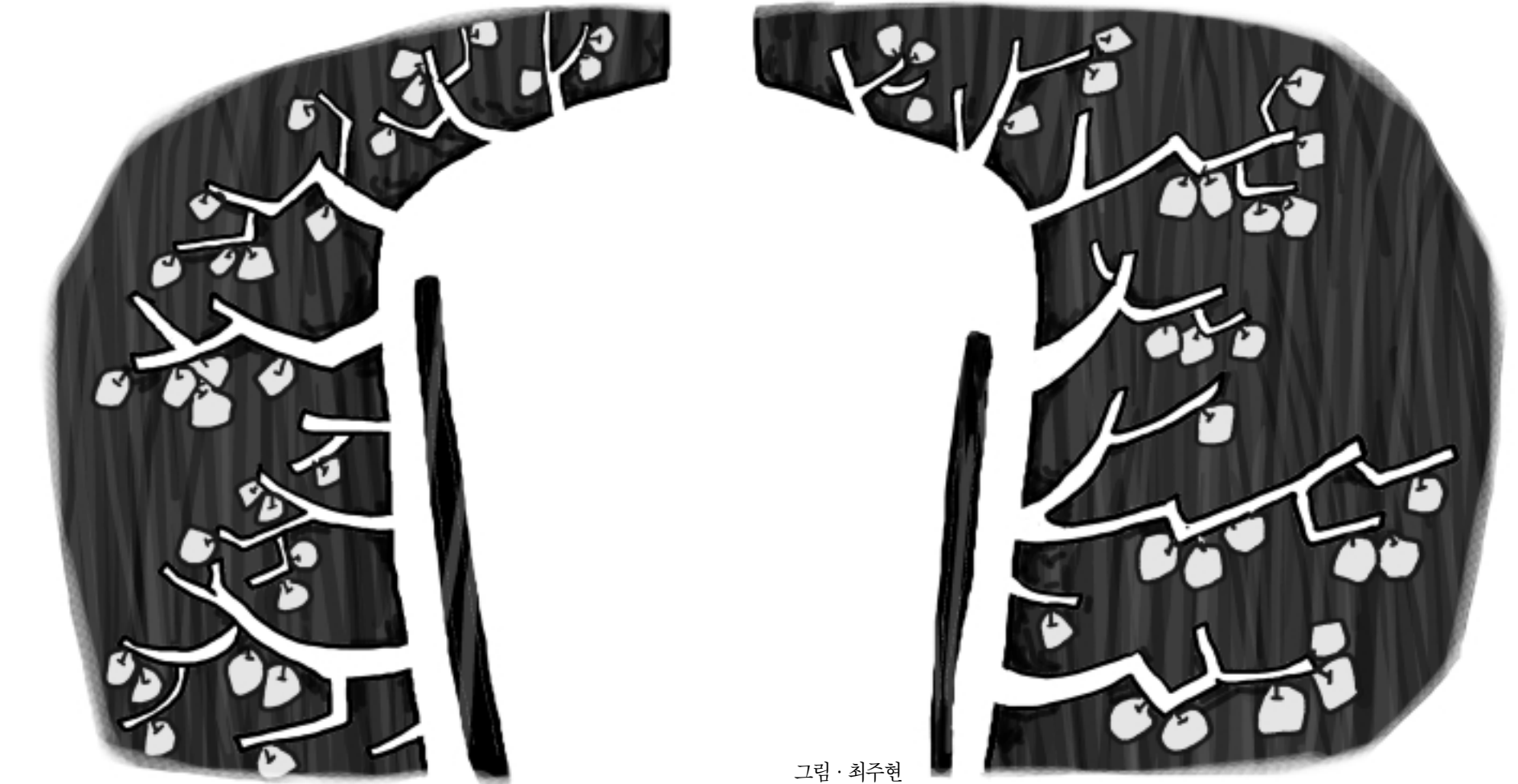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각을 할 때에 천찰백 공안만 되겠습니까? 모두가 화두고, 모두가 공안 아닌 게 없는데 말입니다. 천이라는 거는 천지를 말하고, 칠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 사는 이 자체를 보고 칠백이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뜻을 보고 생각합니다. 왜? 예전에도 삼촌칠백(三從七覺)이라고 그러죠, 죽었을 때도.

그건 그렇고, 또 "암두 스님 들어오라고 해라. 이놈이 그래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도 공부 좀 했다는 놈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들어와서는 귀에 대고 소근소근하니까는, 그냥 끄덕거리고 그만뒀단 말입니다. 그건 또 뭐며, 또 그 이튿날 설법하시는데 예전보다도 더 평정하게 설법을 하시고선, "삼년만 있으면 내가 죽는다." 했더니 그

삼년은 어디에다 둔 말씀이나, 이걸 일러라.

이래서 우리가 천찰백 공안 속에 들어있는 이 자체를 다 '말없이 이룰 수도 있고, 말을 하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말을 하면서도 대답 없이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그 공안의 이치를 알아.' 하는 것을 내놓은 것인데, 아, 그렇게 설법을 하시는데도 또 암두 스님은 "아! 우리 스님이 이제는 말후구를 알았구나!" 그러고선 손바닥을 쳤단 말입니다. 내가 이것이 벌써 서른 안팎에 들은 소립니다만 참, 이 모두가 생각을 어떻게...

달마 대사께서도 육조 대사께서도 혜가 대사께서도, 어느 스님 처놓고 대덕이신 스님들은 면벽 안하신 분이 없어요. 무슨 면벽을 했다고 해서 꼭 어디 죽치고 앉아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졸 누고, 밥 먹고, 똥 싸고 허허, 움쭉거리면서 움쭉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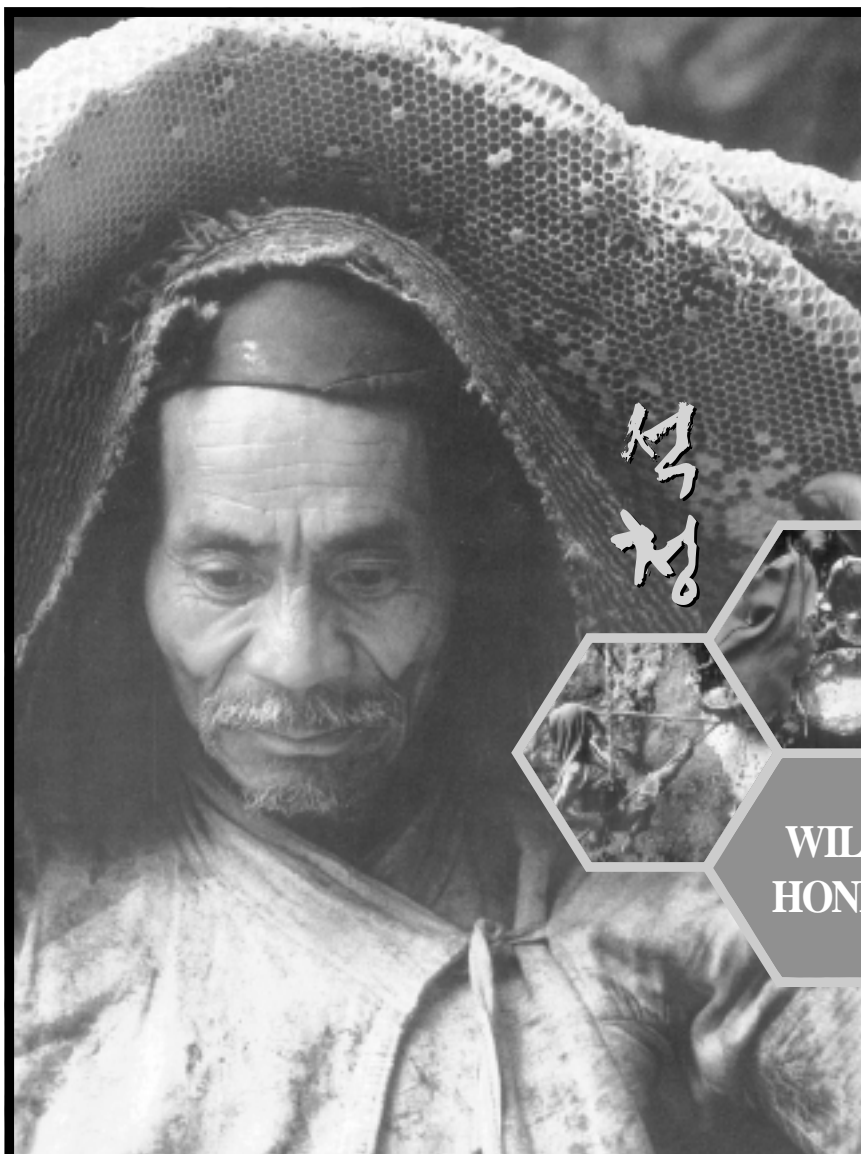
리지 않고 면벽을 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 한 생각이 무르익어서,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나무라던 제 나무에서 제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만 가지 맛이 날 수도 있고 만 가지 열매를 열리게 할 수도 있고, 만 가지 맛이 날 수도 있는가 하면 만 가지 맛이 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제 나무에서 무르익지 않은 열매라던 한 가지 맛이 나지 말지 그렇죠. 한 가지 맛을 내가지고 아니 돼. 이 천찰백 공안도 한 가지, 두 가지 그것 좀 알아가지고선 대답해 봤자야, 그거는.

정말 뿌리 없는 기둥이 하늘을 받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뿌리 없는 기둥을 자루 없는 도끼로 다듬어서 받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이 발 없는 발이 두루 할 거고, 손 없는 손이 두루

할 거고, 말이 많아도 말 한마디도 아니 하고도 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가는데도 그렇게 무수히, 무시무시하게끔 땅속이나, 물속이나, 들이나, 허공이나 도대체 이 실체 없는 생명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그래도 생명이기 때문에 제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몰라서 이 집을 비워 놓는다면 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도 도대체 이거는 가능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은 몸을 망가뜨릴 수 있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면 그 속에 들어간 놈이 주인이 돼서, 온통 괜히 신경질나게 하고 말아야, 괜히 차분한 사람을 그냥 신경질나게 하고, 막 그냥 달아나가게 만들고, 그냥

22면으로 계속



석청

WILD HONEY

놀라운 NEPAL 히말라야 석청(꿀) WILD HONEY 효과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2500-4000M의 높은산에서 서식하는 '아피스라보리오사(Apis Laboriosa)벌이 만들어 내는 천연 꿀로서 옛날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벌은 덩치가 크고 사나우며 높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는 자동차 크기만한 것도 있다.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을 '바랑케'라 부르며,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높은 바위속으로 올라가 석청을 대나무장대로 채취하며, 밑에서는 연기를 피우며 거둬들여지는 석청을 받는다.

석청은 난치병 치료에 특효하며 히말라야 한의사들은 만병통치약이라 부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네팔왕실에서는 국가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청이 알려져 우리나라 KBS에서 2번이나 현지에서 석청 채취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바 있다. 고질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와 체험 사례들이 알려져, 여성잡지「Queen」에 당뇨치료 효과가 특집으로 소개되어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 굳어있는 세포를 생성시키고, 15일만 복용해도 정력이 왕성해져 '비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 복용후 2~3주가 지나면 오장육부가 좋아져 피부가 윤택해진다.
-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당뇨, 고혈압, 아맹증, 아토피성피부, 관절염, 기관지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성기능 장애 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혈액순환장애)
-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 아픈 부위가 화끈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물어가고, 힘이 나고, 설사나 대소변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의식이 통통해지고, 눈물이 나기도하는 증세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질이 변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KOREA, NEPAL EXCHANGE CULTURE ASSOCIATION
한국네पाल 문화교류협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59-48 TEL : 02)2692-5363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690-1 TEL : 052)264-0126, 0577
M.P : 010-5559-5570 / 010-7159-4759
E-mail : JUNGRAN1227@hanmail.net

正 品 供 給

- 가 격 : 600g(15일분) 30만원 / 1kg(1달분) 50만원
※ 현재 백화점 소평물에서 1kg(1달분)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문 의 : 010-6232-6295 / 010-5559-5570 / 054-751-9755

● 온라인 : 신협 10115-13-032450 최정란 / 경남은행 540-21-0500183 최정란 (입금후 2일내 배송)